수아 지정연기 대본

S#3

수아 : (꽉찬 여름의 플래너를 보고, 들고, 놀라며) 흐억, 뭐야. 너 몸이 막 백개냐..? 백여름 뭐 그런거?

여름 : ㅋㅋ 뭐래.

수아 : 너 지금 과외 몇 개하고 있다고 했지?

여름 :(아무렇지 않다는 듯) 지금? 3 개.

수아 :(고개를 저으며) 학기 중에 과외 3 개, 조별과제 조장, 공모전 다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..

여름 : (의아하다는 듯이) 그런가.? 다 그렇게 하지 않나.

수아 :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쁘긴 해도 그거 따라할 필요 없다~ 안 힘들어?

S#10

수아 : 너는 항상 열심히 산다는 것은 알지만, 요즘 유난히 지쳐보여서 걱정됐어. 그래서 너가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어서, 일부러 더 밝게 다가갔는데 나를 피하려고만 하더라. 내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넌 항상 괜찮다고만 하고 아무일도 없다고만 하니까.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속상했어…